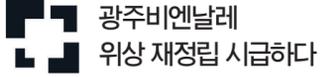


콘텐츠 차별화·시스템 쇄신...비엔날레 환골탈태 절실



광주비엔날레
위상 재정립 시급하다

<하> 조직 전문성·역량 강화

3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는 한 세대라는 시간이 말해주듯 그동안 지역 대표 문화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 제1회 대회 당시에는 160만 여명이 다녀갈 만큼 국내 안팎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이후 베니스비엔날레, 카셀도큐멘타 등에 이은 세계적인 미술축제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위상이 높았다.

그러나 점차 세계 미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명성이 퇴색하면서 위상 재정립은 물론 차별화된 콘텐츠 구현, 역량 강화, 리더십 및 시스템 쇄신 등이 필요하다는 문화계 안팎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30년이라는 기간에 부합할 만큼 조직의 전문성, 역량이 강화되고 업그레이드됐는지 성찰과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엔날레의 퇴색이 비단 광주비엔날레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인 것은 맞다.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외국 유명한 미술관에서 켈리티 높은 전시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맞물려 광주비엔날레가 안고 있는 조직의 불안정성, 인재 양성의 부재, 홍보 마케팅의 부실 등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무엇보다 세계적인 미술 흐름, 방향성을 잘 잡기 위해선 재단을 이끄는 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책 방향성 제시 수장 전문성 중요

세계 미술인들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

작품성 위주 선정·전시인원 확대를

다. 광주비엔날레가 시골축제가 되느냐 세계적인 국제미술제가 되느냐는 대표의 해안과 맞물려 있다.

미술계 인사 A씨는 "비엔날레는 감독 장사라는 말이 있다. 감독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국제적인 관심을 끌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큰 틀과 방향성을 잡는 역할은 재단 대표의 몫이기도 하다"며 "수장의 전문성이 미흡하다면 자칫 감독의 뜻에 따라 방향성 없이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미술계 인사 B 씨도 '수장'의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미술에 정통하고 세계 미술인들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된 인사가 대표에 선임되어야 한다"며 "세계적인 전시 트렌드를 읽고 기획력을 갖춘 대표라야 감독에게 모든 것을 일임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감독은 작가들 실력을 냉정히 보고 작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초창기 작품성 위주로 선정했던 당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비엔날레 명성이 점차 퇴색하는 또 다른 이유는 조직 안정화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지만 얼마만큼 조직이 안정되고 역량이 강화됐는지 미술계 안팎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26일 현재 비엔날레 지원부서(경영지원실) 인



광주비엔날레가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차별화, 시스템 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관람객들이 작품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

원은 18명인데 비해 국제적인 미술축제를 치르는 전시 부서 인원(전시팀)은 부장 포함 고작 6명이다. 이마저도 전시팀장은 공석중으로, 비엔날레 개막 초기에도 비어 있었다. 지원팀이 전시팀에 비해 3배나 많은 인력 구조는 국제적인 미술 전시를 치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미술계 인사 C씨는 "광주 전체가 미술관이며 미술을 즐긴다"는 모토를 내걸었지만 전시 켈리티가 높지 않은 것은 전시 인력 부족 인력도 한 원인이

라며 "계속 전시팀장을 공석으로 둘게 아니라 비엔날레를 겸용하고 노하우를 습득해온 내부 직원을 승진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필요한 인원이 빠져나간다 보니 현재 김요성 사무처장은 마케팅교육부장을, 임근중 경영지원실장은 디자인팀 전시2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상태. 예산과 정책 등을 담당하는 지원부서가 실질적인 전시를 실행하는 실무부서를 겸직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부장도 공석중

으로 현재 재공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홍보를 담당했던 직원도 얼마 전 그만 둔 상태다. 현재 마케팅홍보팀에서 해외업무와 관련한 직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다.

미술계 인사 D 씨는 "공모, 재공모 절차를 반복하다 행사가 끝나버리기 일쑤인데 그보다 근본적인 인재 수혈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미래를 새롭게 꾸려나갈 수 있는 젊은 작가들의 참여 방안도 함께 강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학 통합 이끈 김영록 전남지사 이번엔 의료계 설득 나선다

"일반적 반대와 달라...의대 없는 전남, 지역의료 완결체제로"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목포대·순천대의 통합을 이끈 김영록 전남지사가 의료계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열악한 지역 의료 여건과 지역대학의 대통합으로 확인된 지역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실국 정책회의를 열어 "목포대와 순천대가 인내 끝에 대통합에 합의해 통합대학과 국립의대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이제 의료계가 지역의료 완결체제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도록 설득 노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국립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경우 일반적인 의료계의 증원 반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통합대 국립의대는 도민 여론을 잘 수렴해 절차에 따라 신청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그 이상으로 달성한 것이어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반대 의사를 밝힌 의료계를 설득해 정부가 의과대학 설립 추진 과정에 짐을 덜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 "의료계가 전남도의 통합대학 국립의대 추진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의대 없는 전남을 꼭 받아줘야 한다는 생각도 하는 것으로 안다"며 "국립의과대학을 중심으로 대학병원과 지역 민간 중소병원·의료원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부족한 의사를 확충하고 어려운 병치료도 함께 참여토록 해 수준을 높이는 등 지역 의료체계가 피라미드 구조로 완결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로 모든 실국이 함께 나서 설득하자"고 독려했다.

北, 남측이 세운 개성공단 전력공급용 송전탑 전선 끊어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육로 폭파에 이어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고자 남측이 지어졌던 송전탑까지 철거하려는 모습이 포착됐다.

26일 군에 따르면 북한군 수 명이 지난 24일부터 경의선 주변 송전탑에 올라가서 일부 송전선들을

김영록 지사는 또 "두 대학의 통합은, 학생인구 감소 속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규모화하면서 미래 교육발전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는 차원으로, 중앙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통합대학이 성과가 날 때까지 적극 지원하고, 특히 전남도의 여러 지역 발전 프로젝트와 연구개발(R&D) 사업에 전략적으로 협업해 대학 경쟁력을 키우자"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최근 대통령실, 교육부 등을 잇따라 방문해 목포대·순천대의 통합 사실을 알리고 국립 전남 의대 설립을 서둘러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자르는 모습이 식별됐다. 근 관계자는 "(남측과 연결됐던) 북한에 있는 첫 번째 송전탑에 있는 선을 잘랐고, 끊은 선들은 송전탑 밑에 쌓여있다"며 "북한이 송전탑까지 철거해나설지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주민등록증도 모바일로...다음달 27일 시행

휴대전화에 신분증 저장...블록체인·암호화 등 보안기술 적용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다음 달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내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정보용 QR코드를 촬영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면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만든 국민이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지만, IC칩 비용 5000원을 내야 한다. 행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주민

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은 2008년 출생자 46만 8000여명이 IC 주민등록증을 희망하면 무료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정 사용에 대비하고 자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으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세종과 경기 고양시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발급한 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주민등록증이 약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며 "시범 발급에서 개선 필요 사항을 찾아 보완해 전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m³/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집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고효율 STS membrane 분산기판 (TMS-600+)
- 평형 산기판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삼김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도스트리(주)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망기업 선정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8 중소벤처기업부청장상 (유망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기업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태림인도스트리(주)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본 회사는 2024년 11월 15일 서면결의에 의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동년 11월 15일자로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11월 27일
홍아이텍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15번길 116, 201동 213호 (매월동, 매월종합상가)
청산인 김수아

분할공고
(채권자 이외의 주권채출공고)

창대이엔지 주식회사는 2024. 11. 25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과 같이 인적비례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가칭) 창대건설산업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창대이엔지 주식회사는 존속하기로 하였으며, 이 회사 분할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와 관계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구주권을 가진 주주와 집권자에서는 위 기간내에 구주권을 당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7일
창대이엔지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중앙로59, 2층 (금호동, 성원빌딩)
대표이사 성태호

분할공고
(채권자 이외의 주권채출공고)

주식회사 건영전력은 상기 2024년 11월 26일 그 재산(특수보증금)의 일부를 분할(인적비례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가칭"주식회사 케이와이일렉 설립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로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는 바, 이 분할에 이의가 있는 본 회사의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본 회사의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4년 11월 27일
분할법인 주식회사 건영전력
전라남도 삼안군 지도읍 읍내길 41 대표이사 박중운
분할설립법인 (가칭)주식회사 케이와이일렉
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268 8층 (동배동, 미소스타)
사내이사 양희철

72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안내 •

북구	• 통 266-1920	• 문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222-9171
	• 알 선 571-7659	• 오 지 256-7601
	• 통 433-1503	• 동 선 433-1503
동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통 225-6001	• 중 명 222-9054
	• 통 222-8171	
남구	• 남 부 673-6836	• 백 문 651-1833
	• 통 선 673-6836	• 송 아 675-6605
	• 진 명 671-7276	
서구	• 광 권 382-5788	• 심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 온 376-7153
	• 치 명 376-6511	• 통 명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문 남 952-1687	• 월 광 959-1920
	• 철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선 944-0444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